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 우리 사회의 역할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영숙입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정재훈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주시고 초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후변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탄소중립은 어떠신가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주제는 어느 한 특정국가나 정부, 단체만 하는 의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분 한분 모두가 마음을 기울여서 이루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다뤄야 할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 얼마나 위기 상태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2050 탄소중립', 네 번째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4가지 제안'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언론에서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위기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위기일까요? UN 기구 중에 UN 재해 경감전략기구(UNDRR,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가 있습니다. UNDRR이 발표하기를 지난 20년간 자연재해가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해 123만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20년간 약 7,348건의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홍수, 태풍, 폭염,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거의 91%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매년 1월 달에 스위스의 휴양지인 다보스에 모여서 진행하는 ‘다보스 포럼’은 잘 아시죠? 전 세계 경제계, 정계 리더들이 모여서 시대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회의입니다.



[그림 1] Global Risks Report 2020

다보스 포럼 바로 직전에는 ‘세계위험보고서’가 발표되고,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 전문가 1000명에게 ‘가장 위험 요인을 무엇으로 생각

하느냐?’고 묻는 설문조사결과가 포함됩니다. 2020년 1월 16일에 발표된 세계위험보고서에는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가 뽑은 가장 위험요소로 ‘Climate Change’가 선정되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가장 높은 순위의 위험 요소 5개(극한기후, 기후변화대응의 실패,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의 실패 등)가 전부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인입니다. 선정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가장 위험 요인으로 뽑았을까요? 우리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양대기환경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매년 초에 ‘지난해 우리 지구의 연 평균이 몇도였다’는 수치를 발표합니다. 발표를 살펴보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단위로 1970년, 1980년, 1990년을 살펴보니,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해의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직전년도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괜찮은 수치를 보이는데 2010년, 2020년이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2020년을 한번 볼까요?

[그림 2]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이 지금까지 가장 뜨거웠고, 2005년과 1998년을 제외하면 모두 2010년대입니다. 2019년, 2015년, 2017년, 2018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I.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hottest year record breaks every year!

Top 10 Warmest Years of every 10 years Sour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Year of research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2020s	2030s
1st	1944	1944	1938	1998	2005	2016	Predicted to be 2020s
2nd	1941	1941	1937	1997	1998	2019	
3rd	1945	1979	1983	1995	2009	2015	
4th	1953	1977	1989	1990	2003	2017	
5th	1963	1973	1944	1999	2006	2018	
6th	1942	1945	1980	1988	2002	2014	
7th	1962	1940	1941	1987	2007	2010	
8th	1969	1953	1936	1991	2004	2013	
9th	1943	1958	1979	1983	2001	2005	
10th	1961	1963	1977	1994	2008	1998	

Image: 2020.07.15. The Hankyoreh Newspaper

[그림 2] 미 해양대기환경청의 연 평균 지구 온도 수치

래서 “관측한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는 올해!”라는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니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18년에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폭염이 왔었습니다. 관측한 이래 수은주가 40도가 넘는 상황이 왔습니다. 홍천이 41도까지 올랐고, 실튼없는 폭염 때문에 응급실에 온열환자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7개의 태풍이 몰아쳐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와 많은 피해를 입혔던 피해사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발화로 일어난 호주의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몇 달 동안 일어났던 산불 때문에 코알라, 캥거루는 거의 멸종위기에 다다를 정도이고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재앙수준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서 기후재앙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산불과 오랜 장마로 힘들었습니

다. 캘리포니아 산불은 기가 파이어(GIGA FIRE)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한반도 면적의 16%에 달하는 산림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의 장마는 서울지역의 경우 54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I. The Era of Climate Crisis

Cold Snap in Texas, Flood in Himalaya

- The temperature in Texas dropped to -18°C due to the first cold snap in 30 years(Average 10 °C) (2021.02)
- 3.3 million homes and buildings suffered from power outage
- A flash flood surged down a river in India's Himalayan Uttarakhand state, killing at least 30 people (2021.02)



Source: <https://www.dailymail.com/uk-news/uk-2021-02-18/cold-snap-texas-winter-2021-02-18>
<https://www.dailymail.com/uk-news/uk-2021-02-18/cold-snap-texas-winter-2021-02-18>
<https://www.dailymail.com/uk-news/uk-2021-02-18/cold-snap-texas-winter-2021-02-18>
<https://www.dailymail.com/uk-news/uk-2021-02-18/cold-snap-texas-winter-2021-02-18>
<https://www.dailymail.com/uk-news/uk-2021-02-18/cold-snap-texas-winter-2021-02-18>

[그림 3] 텍사스의 일시적 한파와 히말라야의 홍수

여러분, 올해에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림 3]에서 보이는 사진은 올해 2월 미국 텍사스 주의 사진입니다. 보통 평균기온이 10도 정도의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곳인데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시설이 동파되어 전기가 끊겼고, 정수장 시설도 동파되어 물도 끊겼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니 신호등은 멍통이 되었고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냉장고, 전기레인지 등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온화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두꺼운 겨울옷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담요나 이불을 둘둘 둘러싸고 나와서 슈퍼마켓에 줄서있는 것입니다. 뭘 사려고요? 캠핑용 가스버너에 들어가는 프로판 가스통

을 살려고 이렇게 나와 서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일은 히말라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빙하덩어리가 녹아서 호수에 떨어지니 호수의 물이 넘쳐서 그 밑에 위치해있던 인도 북부에 있는 댐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상재해가 많이 일어나니 ‘이거 정말 큰일이다’, ‘뭔가 우리가 당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책 연구소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2100년까지 우리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보상금을 주어야 할까?’하는 연구조사를 2011년에 진행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홍수, 가뭄,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로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데, 무려 2,800조원을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당장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마스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도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더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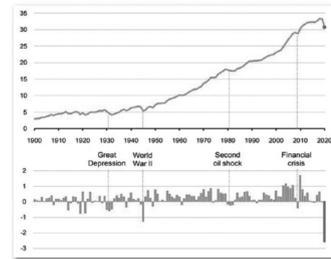
IMF는 2020년 6월에 발표된 자료를 통해 ‘전 세계 경제의 경제성장률이 -4.9%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8%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1년 4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4.9%라고 예측되었던 것이 -3.3%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 정도로 선방할 것이라 발표되었습니

다. 2021년의 경제성장률을 +6%로 예측되었습니다. 6%의 수치는 198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은 코로나19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특히 엄청나게 발병률이 치솟고 있는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 세계경제는 어느 정도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생각합니다.

I. The era of Climate Crisis

Global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fter several global crises, carbon dioxide emissions r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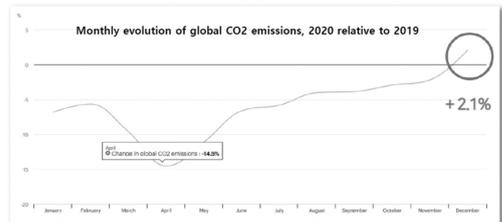
SOURCE: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GLOBAL ENERGY REVIEW 2020

18

I. The era of Climate Crisis

Global pandemic and Climate Change

SOURCE: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GLOBAL ENERGY REVIEW: CO2 EMISSIONS IN 2020 (2021.63)



CO2 emissions have continued to rise since falling by -14.5% during the pandemic. In December 2020, CO2 emissions were 2% higher than they were in the same month a year earlier.

19

[그림 4] 세계적인 팬데믹과 기후 변화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떨까?’라고 여

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2020년까지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 세계경제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온실가스가 줄어들었다가, 그 위기가 잠깐 지나가고 나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4]를 보시면 1930년의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 2차 오일쇼크, 2008년의 경제위기까지 매번 보면 온실가스가 내려갔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에서 온실가스 변동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년 4월에 -14.5%까지 온실가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급반등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전년도에 비해 이미 벌써 올라섰습니다. 또한 '2.1%나 온실가스가 더 증가를 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제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적신호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기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전략, 그리고 정책 중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입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에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가 되었고 이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특징은 역사적인 책임을 몰아서 선진국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성공했을까?', 두 번째 '대한민국은 의무감축국에 들었을까?'입니다. 어떨까요? 둘 다 '아니오'입니다. 성공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에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됩니다. 2021년도가 신(新)기후 체제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파리협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 5] Article 2 of the Paris Agreement 2015

우선 [그림 5]를 보시면 모두가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아는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반 총장께서 UN 사무총장을 하실 때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아주 큰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반 총장님 우측에 있는 계신 분은

파비우스 프랑스 외교장관인데 파리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 총장님 왼쪽에 계신분은 크리스티아나 피구에레스 UN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총장입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들 환호를 하고 있는데, 저도 회의장 어딘가에 앉아 축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파리회의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다른 회의들과는 달리 아주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온도가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하자'라는 것이 강화가 되어 '1.5℃까지 우리가 제한하자'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아닌 모두가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포함됩니다. 선진국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심지어 북한도 참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의미있는 회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노력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상황에 대응해서 각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때부터 내세운 공약으로, 앞으로 2조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클

린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40개국의 정상들을 초청을 해서 기후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2005년 대비 50~52%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보다 2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치로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잃어버린 국제적인 리더십을 다시 되찾았던 회의로 평가받습니다.

유럽은 선두에 서서 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집행위원장이 된 폰 데어 라이엔은 강력하게 '2050년까지 유럽대륙이 최초의 탄소중립을 이루는 대륙이 되게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EU도 역시 '1조 유로의 돈을 투입을 해서 많은 기술 개발과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중국까지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국가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놀라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eneral Electric社は 2005년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취임한 후부터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공표를 하고 약 150억 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5년에 결산을 해보니 'Ecomagination'이라는 친환경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매출이 2,000

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비용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통념들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석유 회사인 British Petroleum社조차도 '많은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Shell社에서 발표한 '친환경에너지로부터 50% 생산하겠다'라는 내용도 본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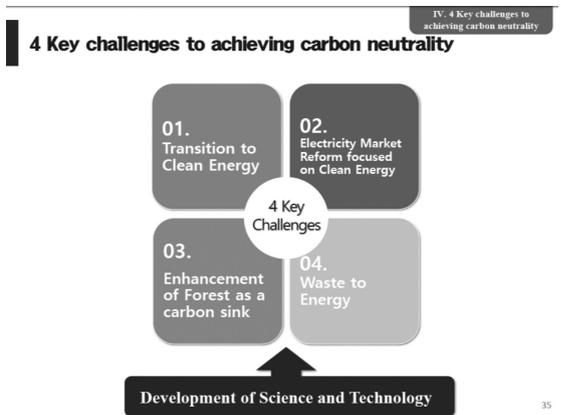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10배에서 16배 정도 많은 규모를 투자하는데, 블랙록의 회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나 국제기구에서의 압력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똑똑한 소비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아주 도전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국판 뉴딜정책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쌍두마차 두 축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arbon Neutrality,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을 합해서 제로 즉, 'NET ZERO'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많이 줄이고 온실가스 흡수는 많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8일에 대통령님께서 '2050 탄소중립'을 발표를 하셨으나 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발표된 것을 보면 2018년 데이터가 현재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7억 2천만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 더딤은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다(多) 배출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중국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합니다. 철강, 시멘트, 정유와 같은 업종들이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데이터에 의해 보면 OECD 최하위의 온실가스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제언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까요? 4가지의 제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 6]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제언

첫 번째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두 번째는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시장 변화, 세 번째는 카본 흡수원인 산림 활용 강화, 네 번째는 폐기물의 에너지화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는 5.4%에 불과합니다. OECD 최하위입니다. 그런가하면 화석연료는 거의 82.6%에 해당합니다. IPCC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석탄, 오일, 가스 등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2050년까지는 거의 석탄을 전량 줄여야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30년까지는 430%, 50년까지는 833%를 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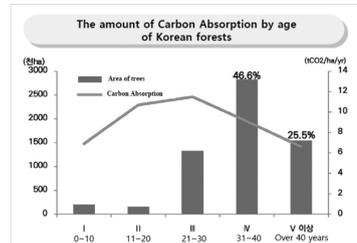
청정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59%, 2050년까지는 150%를 늘여야 한다는 보고를 IPCC 과학기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산림을 흡수원으로 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산림청에서 매년 1억 그루씩 나무를 심어서 2050년까지 3천 4백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를 그냥 잘 보존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대단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나무들은 수령이 30~40년 된 오래된 나무들인데, 이러한 나무들의 탄소흡수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림 7]에서 보이는 것처럼 30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이런 나무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2050년까지 간

03. Enhancement of Forest as a carbon sink

FIG. 4 Key challenges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Korean trees can absorb carbon best when they are 20 to 30 years old. As of 2015, forests between more than 30 years old accounted for 72 percent of all forests in Korea.

Source: Korea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2021), The Korea Herald(2021.02.15) 40

[그림 7]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 활용 강화

다면 2015년의 흡수량의 3분의 1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폐자원을 에너지화(化)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근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폐기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의 해결을 통해 순환경제로서 폐기물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4가지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자, 학계 및 연구계 종사자, 시민단체가 같이 협동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KMIF**